

미래직업 제약·바이오에 구름인파... 80곳에 4천명 발길

2019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

GC녹십자·JW중외제약 등 참여
구직자 대상 '현장면접관' 열어
영업·마케팅 등 멘토 직무상담

제약·바이오기업 74곳과 기관 6곳이 참여한 최대 규모 '취업의 장'인 '2019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가 열렸다.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1전시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정장 차림을 한 구직자들이 가득 찼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설치한 채용상담관과 현장면접관 부스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다.

이 날 현장면접을 신청한 2635명과, 멘토링을 신청한 227명, 대학·고등학교 단체 접수 500여명을 포함해 총 4000여명이 박람회를 찾은 것으로 추산된다.

유한양행과 GC녹십자와 JW중외제약, 대웅제약 등 주요 제약사들을 포함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9 제약바이오산업 취업박람회'에 설치된 중근당 체험상담관에서 구직자들이 상담하고 있다.

한 27곳 기업들은 사전에 이력서를 접수받은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면접을 진행하는 '현장면접관'을 열어 주목을 받았다. 이들 기업은 앞서 맡겨는 각각 수백 개의 이력서를 접수받았고, 행사장 중심에 위치한 파란색 기업별 부스에서 면접을 진행했다.

JW중외제약 조하나 경영지원본부 인재경영팀 부장은 "현장 면접은 채용 과정 중 서류 전형을 대체하는 과정으로 가볍게 이루어진다"며 "하반기 약

120명 가량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란색 부스로 구성된 기업별 '채용상담관' 앞에도 긴 줄이 이어졌다. 이상담관에서는 별도의 이력서 제출 없이 채용담당자로부터 2대일 또는 1대1로 취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행사장 좌측의 '일대일 직무 멘토링관'에서는 연구개발, 영업, 마케팅, 인허가 등 직무별 현직자인 멘토들로부터 약 15분 동안 직무 상담을 받을 수 있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9 제약바이오산업 취업박람회'에 설치된 한미약품그룹 채용상담관 앞에 긴 줄이 늘어섰다. /손진영 기자 son@

다. 이 날 박람회장에는 중근당, 한미약품, 동화약품, 동아쏘시오홀딩스 등을 포함한 총 47개 기업이 채용상담관 부스를 설치하고 구직자들을 맞았다.

최근 JW중외제약, 한미약품 등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면접을 체험할 수 있는 'AI 면접체험관'도 마련됐다.

이날 오전 열린 개막식에서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제약바이오 산업계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

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 자리는 청소년들의 꿈을 키우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청년들이 취업의 꿈을 실현하고, 제약바이오산업계 새 가족으로 함께 국민건강을 지키는 국민산업의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약·바이오산업은 매년 5% 이상 성장하며 3만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의약품 산업 고용증가율은 전 산업 평균의 2배에 달하며, 정규직 채용 비중도 10명중 9명으로 가장 높다. 특히, 의약품 제조업의 청년고용 증가기업 비중은 45.5%에 육박한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제약·바이오산업은 양질의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성장 잠재력이 큰 산업"이라며 "정부는 여기 계신 기업들과 인재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함께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중근당홀딩스, 환우·가족들 위한 '콘서트'

오늘 신촌 세브란스병원서 개최

중근당홀딩스가 4일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오페라 희망이야기 콘서트' 하반기 공연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페라 희망이야기 콘서트는 평소 공연 문화를 접하기 힘든 환자와 가족, 의료진을 위해 병원을 찾아가 펼치는 힐링 음악회다.

유명 오페라, 뮤지컬, 영화 OST 등의 음악을 해설과 함께 들려주는 '오페라 콘서트'와 투병중인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공연인 '키즈 오페라'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중근당홀딩스는 올해 상반기에 부산 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10곳에서 공연을 진행했다. 하반기에는 신촌세브란스 병원, 한국 우진학교, 동방아동재활원 등



중근당홀딩스가 지난 5월 23일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에서 진행한 오페라 콘서트 공연.

17곳의 병원과 장애아동 특수학교, 사회 복지시설을 찾아 공연할 계획이다.

중근당홀딩스 관계자는 "올해는 몸이 불편해 공연장을 찾기 어려운 장애 아동들을 위해 특수학교로 공연 범위를 넓혔다"며 "문화예술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곳을 찾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셀트리온 '램시마' 원료의약품 생산 시동

론자와 위탁생산 계약 맺어
싱가포르 생산제품 허가신청

셀트리온은 세계 굴지의 의약품위탁생산기업 론자(Lonza)와 위탁생산(CMO) 계약을 맺고 '램시마' 원료의약품 생산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그동안 인천 송도에 위치한 1·2공장을 통해 연간 19만 리터 규모의 원료의약품을 생산해 왔으나 늘어나는 바이오시밀러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처음으로 론자와 손을 잡았다.

셀트리온은 스위스 바젤에 본사를 둔 종합 CDMO기업 론자가 유럽 및 북미

는 물론 아시아 지역에도 세계 수준의 cGMP 생산시설을 갖춘 글로벌 CMO 기업이라는 점에서 의약품 위탁생산 파트너십을 맺게 됐다.

양사는 지난 해 6월 램시마 원료의약품의 유럽 및 북미지역 물량을 론자 싱가포르 공장을 통해 위탁생산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양사는 올해 1분기부터 생산시설 품질 검증을 위한 밸리데이션 기간을 거쳐 싱가포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유럽의약품청(EMA)에 허가를 신청했다.

양사는 본 계약을 통한 끈끈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유럽에 이어 미국식품

의약품(FDA) 승인을 위해서도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론자의 싱가포르 공장에서 생산된 램시마는 EMA, FDA 등 글로벌 규제기관의 허가 후 유럽 및 북미지역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뛰어난 품질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론자의 안정적인 생산능력은 셀트리온의 글로벌 공급 능력을 확장하고 대량 생산을 통한 원가경쟁력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램시마의 뒤를 잇는 후속 제품의 미국 론칭 등 글로벌 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이화의료원, 임상연구개발 본격 나선다

팜스빌과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주식회사 팜스빌과 임상연구 개발 및 학술교류정보 등의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16일 서울시 마곡산업단지관리단과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추진한 'M-밸리 이화메디테크비즈교류회' 이후 후속 성과로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양 기관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협약을 통해 마이크로바이옴 및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임상 연구 개발, 학술 정보 교류 및 기술 개발 자문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며 M-밸리 이화메디테크비즈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편육범 이대서울병원장(왼쪽)과 이병욱 팜스빌 대표이사(오른쪽)가 임상연구 개발 및 학술교류정보 등의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편육범 이대서울병원장과 한종인 이대목동병원장, 하은희 의료원 연구진흥단장 등 이화의료원 경영진과 이병욱(썬팜스빌 대표이사)와 김선용 상무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세경 기자

"올 추석 돼지고기 선물하세요"

한돈자조금, 농가 살리기 나서
특별 할인판매 등 판촉행사 개최

올해 들어 극심한 소비 부진과 재고누적 등으로 돼지가격이 폭락하면서 사상 최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돈 농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돼지고기 판촉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부에서 추석맞이 한돈 특별 할인판매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이날 행사는 한돈 할인 판매, 요리 시식, 추석 선물세트 주문접수 등이 이어지며, 이재욱 농림부 차관이 직접 참석해 한돈 농가를 응원하는데 힘을 보탬 예정이다.

이에 앞서 자조금은 지난 8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농해수위와 함께 '한돈 추석선물세트 보내기 캠페인'을 열고 국민들에게 한돈 소비 촉진을 호소했다. 이날 행사에는 황



추석을 앞두고 소비부진 극복을 위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추석맞이 한돈 특별 할인판매'를 찾은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오른쪽)이 한돈 추석선물세트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주홍농해수위원장, 김홍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등 축산관련 인사들이 동참하는 등 한돈 살리기에 적극 동참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미스터피자 반려동물 위한 '미스터펫자'

미스터피자가 업계 최초로 펫푸드 시장 공략에 나섰다.

미스터피자는 반려견, 반려묘를 위한 피자자인 '미스터펫자(Mr. Petzza)'를 선보였다고 3일 밝혔다.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국내 펫(Pet) 시장은 약 3조원, 2027년에 6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유통업계는 '펫팜(Pet+Family)족' 잡기에 분주하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국내 반려인이 1500만명에 육박하며 펫(Pet) 관련 산업이 고속 성장하고 있다. 미스터펫자는 구매 후 수일을 기다려야 했던 일반 수제간식과 달리 피자처럼 주문 후 바로 받아볼 수 있어 소중한 반려동물과 간편하게 피자를 즐기곤 애견, 애묘인들의 눈길을 끈다. /박인용 기자

